

“광주가 ‘의향’으로 불리는 근거 찾고 싶었다”

호남 의병 열전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 쓴 황광우 작가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준영)가 최근 한말 호남 의병장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를 발간하고 광주 지역 초·중·고·특수 학교·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책을 집필한 황광우(61·사진)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정작 광주 시민들조차도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담고, 광주가 ‘의향’으로 불리는 근거를 찾고자 썼다”고 소개했다.

광주 출신인 황 작가는 황지우 시인의 동생으로, ‘철학 콘서트’, ‘젊은이여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등 저서로 유명하다.

“지난해 장휘구 교육감을 만나 광주 학생들이 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위인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죠. 역사는 인물을 통해 감정에 들어오게 마련이예요. 학생들이 서양의 플라투톤스 위인전뿐 아니라, 철학적으로 심도 있고 문화적으로 완성된 호남 위인전을 읽고 자라길 바랍니다.”

책에는 1896~1909년까지 활동한 호남 의병장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호남 성리학의 기동’ 송사기우만, 호남 의병 운동을 주도한 성재 기삼연을 비

기우만·안규홍 등 의병장 10인 삶 탐구 초·중·고·특수학교·도서관 등에 배부

롯해 안규홍, 심남일, 양진여, 전해산, 조경환, 김태원, 양희일, 고광순 등 10인의 삶을 탐구했다.

책은 황 작가를 비롯해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 노성태·김보름·신봉수 역사교사, 박전일 연구원 등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하는 ‘호남한국학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4차례 집담회·대중강좌를 열기도 했다.

황 작가는 “호남 의병이 남긴 원문(한문) 자료를 일일이 찾아 기록했다”며 “이들 자료는 영인본으로 만들고, 제대로 번역해 역사 교사와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을 수준으로 기록했다. 호남 의병 역사를 찾기가 힘든 현실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돌아봤다.

“밀양 의열기념관을 가면, 의열투쟁의 원류로 장성 출신 기삼도 선생을 꼽고 있어요. 정작 호남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잘 모르고 있죠. 위인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꼼꼼하게 속살을 기우는데 호남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황 작가는 일제에 끝까지 항전했던 ‘의향’ 호남의 역사가 100여년 세월 속에서 뿌리를 잃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작가는 지난해 4월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을 열고, ‘광주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데 힘쓰겠다’는 다짐을 했다.

지난해 시인 김남주, 시민권 대변인 윤상원, 광주향정 최후의 수배자 윤환봉, 극작가 박효선 등 80년 5월에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이들을 다룬 책 ‘빛고을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발간한 것도 이같은 다짐이 배경이었다.

현재 황 작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끈 리더였으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장재성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황 작가는 지난 26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장재성 선생 기념사업회를 창립했으며, 독립유공 미 서훈자 72명의 서훈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다.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친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과, 일제에 맞서 싸운 호남 의병들의 정신이 다를 게 하나 없습디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 호남 의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o@kwangju.co.kr

전남대병원, ‘환자안전의 날’ 행사 성료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최근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실장 박용욱 루미티스내과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오류·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반찬나눔행사



광주시 남구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동주)가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밀반찬 3종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다.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사진>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응원의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ACC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와 직원들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진! #힘내라! 문화예술인! #힘내라! 소공상인! #ACC가 함께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ACC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로레슬러 1세대 천규덕씨 별세

프로레슬러 1세대로 ‘당수춤’의 대가로 유명했던 천규덕(사진)씨가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천씨는 ‘박치기왕’ 김일씨, ‘비호’ 장영철씨 등과 함께 트로이카 체제를 이루며 1960~1970년대 대한민국 프로레슬링 황금기를 이끌었다. 검은 타이츠를 입은 천씨가 ‘압’하는 기합과 함께 필살기인 당수로 일격을 날리는 장면은 단연 압

권이였다.

1960년 프로레슬링에 입문한 천씨는 부산에서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천씨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장영철씨와 함께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1963년 정식으로 프로레슬링에 데뷔했다.

유족으로는 큰아들인 탤런트 천호진씨와 둘째 천수진씨가 있다. /연협뉴스

인사

◆광주상공회의소
◇3급 부장 승진 ▲경영지원본부 박시현 ▲기획조사본부 박중현 ▲협력사업본부 김지은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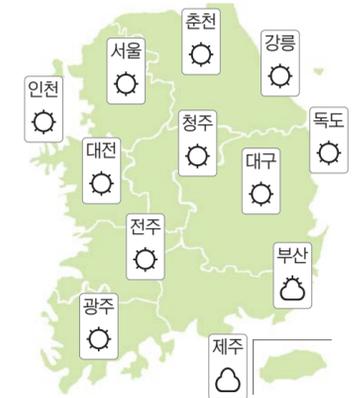
해돋이	05:19	달몰림	16:50
해질	19:43	달출몰	03:26

강렬한 햇빛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9/29	보성	구름많음	18/25
목포	구름많음	19/25	순천	맑음	19/27
여수	구름많음	19/23	영광	맑음	19/28
나주	맑음	19/28	진도	구름많음	18/24
완도	맑음	19/24	전주	맑음	19/30
구례	맑음	18/30	군산	맑음	18/26
강진	구름많음	19/25	남원	맑음	19/30
해남	맑음	18/25	혁신도	구름많음	16/22
장성	맑음	19/2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5	0.5~1.0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1.0		
	면바다(서)	0.5~1.5	1.0~2.0		
	면바다(동)	0.5~1.0	0.5~1.5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5:10 17:30	11:57 --:--
여수	00:46 13:00	06:56 19:38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매우 높음	보통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20/30	18/30	19/30
7(일)	8(월)	9(화)
19/30	19/30	19/3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홍기동·진복자씨 차남 경수군, 이용현(광주관 광컨벤션뷰로 대표)·강경애씨 장녀 혜윤양=6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062-228-0000.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연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윤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지식·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이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

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신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면)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